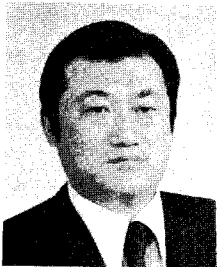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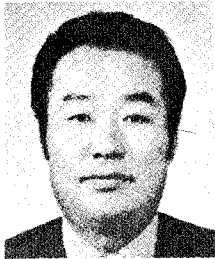
1986년도 전국 순회 양계강습회 성료

채란양계업의 계열화와 양계생산성 향상을 중심으로

- 지난 5월 14일 전주를 시발로 광주, 제주, 부산, 대구와 서울에서 실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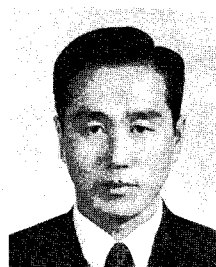
(정태원 회장)



(박영인 회장)



(이영욱 박사)



(정선부 박사)



(이규호 박사)

본회가 주최하고 미국사료곡물협회(USFGC)가 후원하여 양축가, 계란유통 관계인, 유관업체, 관계 공무원, 유관단체 관계자, 학계 및 연구계를 대상으로 양계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하여 채란양계의 계열화를 유도하고 방역 및 사양관리 개선으로 생산성 향상과 상품성을 높이기 위한 전국순회 강습회가 지난 5월 14일 전주를 시발로 광주, 제주, 부산, 대구와 5월 21일 서울을 마지막으로 연인원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다.

21일 서울 상공회의소 중회의실 2층에서 오후 1시부터 실시한 양계 강습회에서 본회 정태원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협회가 올해 중점 사업으로 2월부터 추진중인 홍보사업에 대해 간략히 소개 했다.

그리고 정회장은 협회에서 홍보활동을 아무리 강력하게 한다해도 생산자가 산지에서 깨끗하고 신선한 계란을 생산해주시지 못하면 협회홍보활동이 무의미 해짐을 강조하고, 생산자는 최근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비위생적인 계란이나 닭고기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양계산물의 과잉생산문제로 대해서 언급, 작년 동기대비 일반사료는 8.87%가 더 소비되었는데 비해 양계사료는 18.2%나 상향되어 양계산물의 과잉생산을 지적했다.

사료생산면에서는 85년 총 6백 45만톤 사료생산에 비해 86년은 21만 9천톤이 줄어든 6백 23만톤을 계획했으나, 오히려 전년도에 비해 9% 증가한 것은 축산물 특히 양계산물의 과잉생산을 예견 할 수 있다고 했다.



양계산물의 과잉생산은 양계산물의 가격 하락을 초래하여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양계업계의 장기불황을 더욱더 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양계인이 단결하여 생산량을 조절함으로써 불황인 양계산업이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사말이 끝난뒤 정태원회장은 이번 전국순회 양계강습회에서 채란양계업의 계열생산에 대해 강의를 맡은 미국 버지니아 주립대 폴·러슬러 박사에 대한 감사패 전달이 있었다.

이어 시작된 강의에서 폴·러슬러박사는 미국도 채란양계업의 계열생산이 이루어지기 이전인 40여 년전에는 뒷뜰 방식에서 시작, 제2차대전 이후 경제성장과 더불어 단백질 소비량이 증가함에 따라 계열화가 이루어지기 시작 현재에 이른다고 했다.

미국은 계열화가 태동된 이후 양계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여 왔는데, 계열화 이전 시기인 35년전과 현재를 비교할 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사육, 생산자재의 공급, 판매 기능을 연계하고 규모의 대형화로 작업능률을 높임으로써 생산비를 대폭 절감한데 있다.

계속해서 미사료곡물협회 한국지부 박영인회장의 계산물 소비와 생산자의 역할에 대한 강의와 가족위생연구소 이영옥박사의 산란율을 저하시키는 질병대책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이어 축산시험장 가금과 이규호박사의 생산비를 절감하는 양계관리에 대한 강의를 마지막으로 지난 14일부터 시작한 전국순회 양계강습회의 대장정을 마쳤다.

한편 지방강습회(제주, 부산, 대구)에서는 정선부과장(축산시험장 가금과)이 생산비절감을 위한 헛닭관리에 대하여 강의하였으며 미국인 강사의 통역은 계경성 부장(USFGC 한국지부)이 담당했다.

'86년 제3차 이사회 개최



86년 제3차 이사회가 지난 5월 21일(수) 오전 11시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이사회에서 △전결 규정 개정건 △'86 양계산물 소비홍보사업 특별 회계 제1차 추가 경정 예산 승인건 △월간양계 발행인 변경건 △기타사항 등 부의안건을 심의했다.

특히 이날 한냉의 위생란 홍보판철거 문제를 이사회에서 강력히 요청해 본회에서 즉각 조치하기로 했다. 회의가 끝난후 전국 순회 서울지역 양계강습회에 참석하였다.

계란 및 닭고기의 규격 제정건의

현재 닭고기 및 계란의 공정규격 기준이 없거나 현실에 부합되지 않아 지역간 규격기준이 다르고 가격이 차이나게 유통되고 있어 본회에서는 계란 및 닭고기의 규격기준 제정건의를 농수산부에 제출했다. 본회는 지난해 축협중앙회의 지원으로 한국가금학회의 협조를 받아 '계란과 육계의 유통규격 조사연구'를 실시한 바 있어 이의 실시를 농수산부와 축협에 각각 건의 한것이다.

최근 소비자들이 계란과 육계의 품질향상을 위해 규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86

· 88 양대 국제행사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규격화된 양계산물을 유통시켜야 하며, 일본 엔화 상승에 따른 대일수출 등 제반 주변여건이 양계산물 규격화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어 정부의 공정규격기준을 하루 속히 제정하여 줄것을 건의한 것이다.

한냉 위생란 홍보판 회수

- 본회 요구, 한냉에서 철거기로 -

국내 양계업이 발전하는데 있어 하나의 모델로, 본 협회가 정책 건의해 국내 최초로 위생란을 생산하게 된 한냉은 일반계란과 위생란을 비교한 홍보판을 각 판매점에 설치하여 기존 일반계란 소비에 막대한 영향을 주어 물의를 일으키게 됨에, 그동안 많은 양계업자로부터 문구개선 또는 홍보판 철거를 요구받았다.

협회는 지난 4월 25일 한냉의 홍보판으로 인해 일반계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할 뿐만 아니라 '전체 양계업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한냉측에 주지시키고 홍보판의 문안개선 또는 회수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한냉은 서울지역 각 판매점포에 설치하였던 위생란 홍보판이 전체 계란소비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홍보판을 전량수거기로 결정하여, 현재 수거중에 있으며, 협회에서 수거에 협조해 줄것을 부탁했다.

본회는 양계관련인 또는 관련단체에서 한냉 홍보판 수거에 누락이 있는 경우 연락하여 주면 한냉측에 재차 요구해 시정해 줄 예정인 바 철거가 되지 않은 홍보판이 설치되어 있는 매장을 연락해 주길 바란다.

그간 협회에서는 서면으로 2회에 걸쳐 한냉측의 위생란 홍보판 회수를 요청한 바 다음과 같이 한냉(주)측에서 위생란 홍보판 회수에 대한 공문을 보냈다.

(위생란 홍보판 회수) 1986. 5. 29

1. 양계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귀 협회에 감사드립니다.
2. 당사에서 국내 최초로 위생란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바, 위생란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를 위하여 서울지역 각 판매점포에 위생란 홍보판을 설

치 운영하던중.

3. '86. 4. 25 귀 협회에서 일반계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당사에 위생란 홍보판 수거를 요청하였는 바.
4. 당사에서는 양계산업의 발전적 차원에서 이를 전량 수거기로 결정하여 현재 수거중에 있으나 각 점포에 설치한 것중 상당량이 파손되었으며, 각 지역점포에 산재하고 있어 수거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므로 양해하시기 바라오며, 귀 협회에서 발견시에는 당사에 연락주시면 즉시 수거하겠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수거하여도 무방하오며, 본 홍보판을 조속히 수거할 수 있도록 귀 협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IB세미나 및 IB 학술좌담회 개최

- 6월 4일과 5일 -



△ 양계업계 이목을 집중시킨 본회 IB 세미나

그동안 국내에서는 존재한다, 안한다로 논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병명이 확실하지 않은채 작년 11월부터 서울·경기일원과 영호남을 휩쓴 수수꺼끼 같은 호흡기 질환을 동반한 산란저하증은 IB (닭전염성기관지염) 바이러스가 분리됨에 따라 그동안 심증은 있었으나 확신을 못해 논란이 되었던 질병이 IB로 밝혀졌다.

이에 협회는 전국 양계농가 및 양계업체에 대해 IB질병교육의 필요성을 절감, IB백신 수입업체인 덕수가축약품상사(대표 박길수)후원으로 지난 6월 4일 전경련 회관 3층 중회의실에서 화란 인터넷

사의 IB 질병 전문가 하인(Dr. Ruud G. Hein) 박사를 초빙하여 IB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본회 노영한 편집국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는데, 정태원회장을 대신해 황인옥전무의 인사말이 끝난뒤 바로 하인박사의 강의에 들어갔다.

하인박사는 강의에서, IB는 1931년 미국에서 발병 보고된 아주 오래된 가금질병으로 세계 각국에 산재해 있으며, 바이러스형은 8가지로 그 변이가 아주 심하며, 현재 사용되고 있는 백신은 매사추세츠(Massachusetts)형으로코네티컷트(Connecticut)형은 실제 닭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IB는 잠복기가 18~36시간 밖에 되지 않으며, 비말 혹은 공기 또는 계사에 출입하는 사람, 기구 등 여러 경로에 의해서 쉽고도 급속하게 전파하는 질병으로, 폐사율은 높지 않으나 2차 감염이 문제임을 지적했다. CRD나 대장균 특히 신장염인 경우 폐사율이 높다고 했다.

성계에 있어서 증상은 호흡기 증상과 실사, 산란피크가 없고, 산란을 저하, 연란 및 기형란 생산, 부화율 저하 등인데 이들 증상은 한번에 모두 나타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전국의 양계업자와 관련기관·업체 등에서 260여명이 참석하여 우리나라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질병에 대한 강의를 경청했다.

6월 5일 오후 2시 서울 팔레스호텔에서는 하인박사와 국내 연구소·학계·양계업계의 전문가 20명을 초청 IB학술좌담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학술좌담회에서는 후원기관인 덕수가축약품상사 박길수사장의 인사말에 이어 가축위생 연구소 이영옥박사의 우리나라 IB에 대한 소개에서 79년 IB혈청학적조사(206수에 조사)에서 계군 55.38%, 개체별로는 16.9%가 나타났음을 밝혔다.

하인박사는 IB바이러스가 장에서 증식하여 수란관에 침입, 손상을 입혀 산란저하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나, 아직 병의 확실한 기전은 알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IB바이러스는 크게 호흡기증상과 함께 산란저하를 가져오는 경우와 호흡기증상없이 산란저하만 가

져오는 2가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IB 바이러스인 코로나(Corona) 바이러스는 변이가 아주 심해 새로운 항원형이 239개까지 있다고 했다. 그러나 백신이 상품화 되어있는 것은 매사추세츠형과 코네티컷트형 2가지로 매사추세츠형이 주로 쓰이고, 코네티컷트형은 닭에 별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백신 개발의 의의 정도 밖에 없다고 했다.

하인박사는 계속 이어서 산란계의 경우 1~10주령에 감염되면 호흡기증상 없이 수란관이 파괴되어 산란피크가 없어지고 무산란이 된다고 했다. 그리고 10주령 이후 감염은 호흡기증상은 있으나 산란에는 크게 지장이 없다고 전했다.

부화 1일령에 스프레이 접종하고 6~7주령에 음수접종하는 것은 16주령까지 호흡기증상을 막아주고 대장에 IB바이러스의 감염방지를 위한 것이다.

육계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상부피하조직 손상으로 마이코플라즈마, CRD, 대장균 등의 2차 감염이 큰 피해를 준다고 했다.

하인박사는 실제 IB는 일정한 발병패턴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학술좌담회에서는 각계인사가 참석하여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외국의 경우와 우리나라의 경우 및 우리나라 농장 등 여러가지 방법에 걸쳐 비교분석하며, 질의응답으로 3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양계산물 소비홍보 매스컴활동

- TV, 라디오, 잡지 등에 홍보 -

본회는 양계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리는 방법중에 하나로 라디오, TV, 잡지를 이용하고 있다.

KBS라디오 「오늘과 내일」프로그램중 변모의 현장에서 변화하는 양계산업편을 방송했는데, 이에 관해 양계산업현황 및 양계산물의 우수성에 대해서 본회 남두회 편집부장이 소개를 했다. 방송은 5월 23일 23:00 972 KHz, 5월 24일 01:00 711.792 KHz, 08:00 972 KHz 에서 보도했다.

지난 5월 26일에는 3시 40분부터 4시까지 KBS라디오 프로그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 동아대



△ KBS-1TV 달걀관계 현장 취재(기릉농원)

학교 김대진교수가 달걀소화육의 우수성, 임신부에게 달걀이 어떠한지, 달걀에 의한 동맥경화증에 대한 해명과 콜레스테롤 등에 관한 청취자의 전화질문에 답변을 했다.

또한 KBS-1TV에서는 6월 16일에 방영될 「퀴즈로 즐겁시다」에서는 달걀을 주제로 저녁 7시 5분부터 35분까지 30분간 방영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기릉농원, 축산시험장과 본회 닭경제능력검정소에서 취재했으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여성중앙 5월호에 “나는 닭고기입니다”라는 기사가 게재되는데 이어 6월호에는 전면 칼라로 달걀에 관한 홍보가 실렸으며 월간식생활 5월호에 요리강습회 행사내용의 보도와 “달걀요리를 할때는”이란 기사가 나갔으며 6월호에도 각국의 닭고기요리 강습회 행사내용과 “전통음식”에 영계백숙편이 보도되었다.

부업양계기준 상향조정 예정

- 농가부업규모 양계 1만수로 상향조정 -

최근 양계업의 단위당 소득이 낮아지는 추세에 따라 경영합리화를 위해서는 농장의 대단위화가 불가피하고,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복합영농을 주축으로 한 부업양계농가 육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 본회는 부업양계 기준설정 및 면세대상 양계규모를인상해 줄것을 지난 4월 농수산부에 건의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정부 여당에서는 농가부업규모를 현행보다 상향조정키로 하고 양계의 경우 1만수로 상향조정

하기로 결정하고 앞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세법에는 양계 부업규모를 3천수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 1만수로 상향조정되면 30만 양계농가 중 1천여 농가만 세금을 내게될 예정이다.

5월 육계분과위원회 개최

- 5월 21일과 30일 두차례에 걸쳐서 -

지난 5월 21일과 30일 두차례의 육계분과위원회가 개최되었다.

5월 21일은 전국순회양계강습회를 겸하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렸으나, 가격이 의외로 좋고, 가격전망이 어려워 여름 성수기 물량에 대한 정확한 전망을 할 필요성이 요구되어 다시 한번 더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 5월 30일 본회 회의실에서 전국 의 다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지역별 정보교환에서 육계 하이는 kg당 920 원에서 1000원, 세미는 800원에서 900원으로 세미보다 하이 가격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조생추가격은 지금까지 복을 대비해 쉬고있던 계사에 입추하려는 의욕들이 많아 병아리는 품귀에 가까와 가격이 270원~320원대를 훑아하는 최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세미가격이 낮은 것은 전국적으로 호흡기병이 심한데, 특히 30일령에 많이 나타나고 있어 세미로 출하하기 때문에 가격이 낮은 것으로 보았다. 뉴캐슬백신 접종후 호흡기계통의 질병이 많이 발생함으로써, 백신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여름철에 대비하여 호흡기질병은 대장균에 의해 올 수가 있으니, 물탱크 사용농장에서는음수용 소독약으로 자주 소독을 하여 줄 것을 강조했다.

육계가격전망은 5월의 육계가격이 좋은 상태이고 돼지고기가가격도 좋고 소비가 잘되고 있는점을 볼때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검정위원회 개최

지난 6월 3일 본회 회의실에서 86년도 제 2 차 검

정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18, 19, 20회 산란계 검정 성적 검토되었으며, 제16회 육용계 최종성적을 분석하여 총괄표단 월간양계 6월호에 게재키로 했다. 또한 17회 육용계 검정 실시에 따른 제반 사항을 처리했다. 그리고 7월중에 출품농장 대표자와 본회 검정위원과의 간담회를 가지기로 했다.

본회 및 지부 임직원 수련회

- 6월 18~19일 충남 계룡산에서 -

본회 및 각도지부 임직원의 유대강화로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상호 긴밀한 업무협조체제를 돈독히 하기 위한 본회 임직원 수련회를 6월 18~19일 양일간 충남 계룡산에서 갖을 예정이다.

본회 회장단, 각도지부장, 각분과위원장, 지부 및 본회 상근직원 5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수련회에는 정신교육, 교양, 인화단결, 신체단련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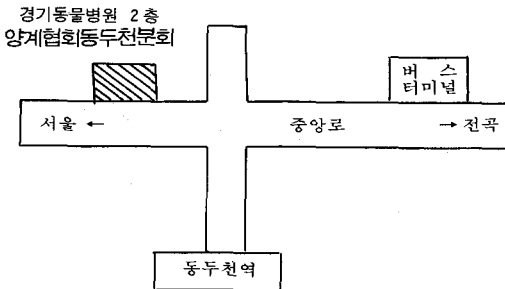
본 수련회 경비는 본회 회장단의 협찬금으로 실시된다.

동두천분회 사무실 확장이전

본회 용인분회(분회장 최영식)는 본회의 업무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5월 20일 사무실을 확장 이전했다.

주소: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2동 689-5
전화: (0351) 5-2374

<약도>



전국순회 양계강습회강사

폴·러슬러박사와 인터뷰

- 지난 5월 22일, 미문화원 회의실에서 -

전국순회양계강습회를 위해 일시 내한한 강사 폴·러슬러박사(Paul L. Ruszler)와 미국의 양계산업 현황과 위생란의 실태에 대해 알아보고자 5월 22일 (목) 미국문화원 회의실에서 인터뷰를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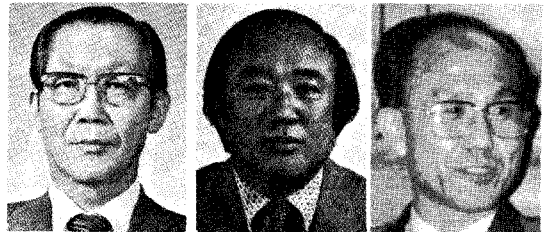
미국에서의 위생란 유통과정과 우리나라의 G·P 센터를 본 소감에 대해 얘기를 나누었으며, 미국의 채란양계산업이 발전되어온 과정도 얘기를 했다.

또한 미국의 양계산물 소비홍보 활동에 관한 사진들과 홍보물을 함께 보며 활동상황 등에 관해서도 설명을 하였다.

그는 행사일정을 마친후 5월 24일(토) 미국으로 떠났다. 자세한 사항은 본지(p 120)를 참고하기 바란다.

미국 채란양계업계 시찰단 출국

- 채란계 계열화 등 선진양계업계 시찰 -
6월 7일 출국 2주간 예정



(오봉국 단장) (한 순 부회장) (노영한 국장)

본회에서 주선한 미국 채란양계업계 시찰단(단장 오봉국)이 6월 7일(토) 오후 출국했다.

미국사료곡물협회 초청으로 출국한 채란양계업계 시찰단은 오봉국 교수등 15명으로 구성되어 캘리포니아, 아틀란타, 시카고, 뉴욕, 워싱턴 등지의 채란양계농장, 종계장과 유통과정, 소비구조, G·P 센터, 채란계 계열화 현황을 돌아보고 오는 6월 20일경 귀국할 예정이다.

이번 시찰단은 오봉국교수(서울농대)와 한 순 부

회장, 김 현이사, 이학복이사, 노광순 감사 등 본회 임원과 채란양계업계 대군양계인, 본회, 전남지부 임원, 사료업계, 기계·기구업계 인사 등으로 구성되었다.

안내는 박영인회장과(USFGC 한국지부)본회 노영한 편집국장이 맡는다.

시찰단 명단은 다음과 같다.

오봉국, 한 순, 유시련, 한명수, 고중현, 김 현, 정규원, 노광순, 이학복, 안호공, 문종태, 문태원, 김영주, 노영한, 박영인 (15명)

양계산물요리강습회, 전시회 및 시식회 성료 -연인원 2천 8백여명 동원, 6개지역에서 7회-



△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된 양계산물 요리강습회에 2천 8백여명이 모여 성황을 이루었다.

본회 금년도 중점사업인 양계산물 소비홍보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한 달걀·닭고기 강습회 전시회 및 시식회를 사단법인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회장

왕준련)의 주최, 본회 후원으로 5월 7일 서울 프라자 호텔에서 각국의 닭고기요리 강습회 및 전시회를 마지막으로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행사는 3월 25일 서울 YMCA에서 달걀요리강습회를 시작으로 대전, 광주, 전주, 부산, 대구에서 달걀·닭고기요리 강습회를 하였으며 서울프라자호텔 덕수홀에서 '86·'88국제대회를 대비한 각국의 닭고기요리 강습회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연인원 2천 8백 13명의 참석과 각 매스컴의 보도(KBS 2-TV 명랑열차·명랑계시판, MBC-TV 생활뉴스, 기독교방송, KBS 1-라디오 하이웨이, KBS 1-TV 9시뉴스, 대한뉴스, 동아일보, 매일경제신문, 일간스포츠와 월간식생활, 여성동아 및 관련업계매스컴 등)로 더욱 열기를 띤 행사였으며 소비홍보에 한층 더 효과를 냈다.

이번 행사중 적극적으로 지원협조한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조를 바란다. 아울러 본회는 지속적인 홍보사업을 벌여 양계산물의 우수성을 소비자들에게 널리알려 안정된 양계산업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6 월 편집위원회 개최

본회 5월 편집위원회(위원장 정선부박사)가 지난 5월 20일 오후 4시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월간양계 5월호에 대한 검토와 6월호에 대한 토의가 있었다.

지령 200호를 맞아 좀더 넓은 시야로 양계업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거시적인 토론과 함께 근대적인 양계장설비에 관한 토론회 방향과 취재 부문에서는 피상적인 취재를 떠나 장기적인 계획아래 심층취재 방향에 대한 중점 논의가 있었다.

양계인의 자존을 위한 소비홍보사업에
전 양계인의 능동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홍보업무 문의 ☎ (778) 8103~4